



◇사자상과(15×21cm) 초전법륜상(22×30cm).

인도 2권기행 21

그림·글 이호신

사슴과 함께 듣는 붓다의 법문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났다. 곳에 차우칸디(chaukandi)스투파가 우뚝하니, 일명 영불탑(佛塔)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 우뚝 솟은 다메크(Dhamek)스투파, 사슴동산으로 부르는 녹야원(鹿野苑)의 중심이 되는 대탑(직경 28.5m, 높이 42m) 주변엔 탑돌이가 한 정이다. 다메크란 '진리를 본다'는 뜻으로 무명(無明)에서 깨어나려는 중생들의 발길로 만원인데, 순례객은 거반 한국인으로 반갑게 눈인사를 나눈다.

부러진 아쇼카석주가 서 있는 녹야원 풍광은 사슴 동산에 우뚝 솟은 대탑 사 이로 온갖 유물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정작 녹야원의 주인이어야 할 사슴은 인간들의 발길로 월망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사육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사르나트는 붓다의 최초설법으로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와 함께 최초의 승가(僧伽)가 형성된 곳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맞은편 사르나트 고고학 박물관 유물은 빛을 발한다.

즉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중에 하나라는 '초전법륜상(初轉法輪像)'은 해맑은 청년의 모습으로 법륜을 굴리는 모습(說法印)인데 탄력적인 육감과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굽타시대(5세기경)에 조성된 불상으로 우리 석굴암처럼 제작자는 당시 최고의 돌을 고른 안목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특히 불상하단엔 두 마리의 사슴이 제자들과 함께 법륜을 듣고 있는 조각은 이곳의 출토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주목할만한 또 하나의 유물은 현재 인도 정부의 국장(國章)으로 쓰고 있는 아쇼카석주의 사자머리이다. 4마리의 사자가 사방으로 왕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 밑의 바퀴는 법륜(法輪)을, 그 사이에는 4마리의 짐승(코끼리, 흰소, 말, 사자)이 조각되었는데 모두 붓다와의 인연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돌기둥을 받쳐주는 주름치마같이 흘러내린 연화대는 이후 많은 불교 조각에 응용되는 초기 문양의 사례로 돋보인다.

신라의 헤초스님은 이것을 보고 '위에 사자상(獅子像)이 있는 석주당(石柱幢)은 다섯 이름이나 되며, 거기에 새긴 무늬가 매우 아름다웠다'(<왕오천축국전>)고 전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행해진 붓다의 최초설법은 <전법륜경(轉法輪經)>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세상에는 두개의 치우친 길이 있다. 수행자는 그 어느 쪽에 기울어져도 안된다. 하나는 관능이 이끄는 대로 욕망과 쾌락에 빠지는 일인데, 이것은 천하고 저속하며 어리석고도 무익하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열중하는 고행인데, 이 또한 괴롭기만 할뿐 천하고 무익하기는 마찬가지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이 두개의 치우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 중도(中道)를 깨쳤노라. 이 중도에 의해서 통찰과 인식을 얻었고, 평안과 깨달음과 님플, 그리고 열반에 이르렀노라."

"중도의 길"을 설파한 붓다의 설법은 오늘의 삶에 있어 얼마나 유익한가. 아니 하루를 살아도 집착과 고뇌에서 일탈할 수 있게 하는 명백한 삶의 진리가 아닌가.

이 같은 진리의 생터, 녹야원 주변엔 오늘날 버마, 스리랑카, 중국 절과 티베트 사원이 들어섰고 자이나교 사원까지 등장했으니 세상 '진리의 숲'을 떠올린다. 길을 떠나기 전 다시 다메크 대탑주변을 돌아보는데, 벽돌사이로 수많은 불상 조각과 문양들이 세월의 잔영을 머금고 햇살에 반짝인다.

어느새 사슴들이 월망 너머 숲 아래 서서히 새떼들이 무리를 지어 허공을 날아간다. 한 순간, 진리의 말씀 아래 온 세상이 안녕하다.

lrs1957@yco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진리의 숲에 펼쳐진

‘中道’

대답 사이로 온갖 유물 산재

정작 주인인 사슴들은 사육장 신세

붓다의 첫 설법지, 최초 승가 형성된 곳

옛적 사르나트(Sarnath) 숲 속에 두 우두머리 사슴이 각기 사슴 500마리씩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을 통치하던 왕이 한꺼번에 서너 마리씩의 사슴을 잡아가지자 한 사슴왕은 왕을 찾아가 조야했다.

"왕께서 너무 많은 사슴을 사냥하시면 한꺼번에 먹기 어려워 썩게 되고 반찬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즉 저희가 사슴 한 마리씩을 매일 바치면 신선한 사슴을 드실 수 있고 저희의 생명들도 연장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슴들은 순서를 정해 매일 한 마리씩 목숨을 내놓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끼를 밴 사슴 차레가 되자 그 사슴은 한 사슴왕(대바녹왕)을 찾아가 "제가 죽으면 제 뱃속의 새끼도 함께 죽습니다. 비록 이번이 저의 차레이오나 뱃속의 새끼는 죽을 차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원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또 다른 사슴왕(보살녹왕)을 찾아가 사정하 였더니 사슴왕은 크게 감동하며 "오, 이것이 어머니의 자비심이로구나. 어머니의 은혜가 뱃속의 새끼까지 미치고 있구나. 내가 오늘 너 대신 목숨을 내 놓겠노라"고 하며 바라나시왕을 찾아가다.

왕은 순서도 아닌 사슴왕이 스스로 찾아온 사정을 듣고 그 사유를 알기엔 바. "오, 훌륭한 자비로구나! 너는 비록 사슴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행색으로 너희보다 자비심이 없었음을 깨달았노라." 이리하여 이후로는 왕이 사슴사냥이나 사슴제물을 멀리하여 동산에서 사슴들이 행복하게 뛰놀 수 있게 되었다.(인도와 네팔의 불교성지, 정각, 불광출판사)

전해오는 위의 이야기는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요, 자비로운 죽음은 도리어 소생한다"는 아름다운 교훈이다. 이렇듯 사르나트는 '사슴의 왕'을 뜻하는 명칭인데 바라나시 북쪽 8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첫 설법을 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붓다가 예전 자신을 따르던 다섯 수행자에게 마침내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만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 행운을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지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2문제 맞추지 못해 낙방하는 수험생이 50% 이상 된다는 통계를 보면 이것은 실력의 문제 보다 마음의 안정이다 그러므로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몸에 꼭 지니고 가야합니다.

격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부평중인 분, 큰 고민거리들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 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생되며 정진 발원시 일년무야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시면 사용하실때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으 시며 가정에서는 성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 도 상품입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월 금액 195,000

전화로 주 소원 성취를 알려주신 우체국 통기소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1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중문동 177 8층 B/D406호

연꽃축제가념 행사기간 동안 전화 주시면 3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만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와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살아남는 스펠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다. 워터스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통한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 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 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방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다면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천천히 바르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성한법 전곡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몸체 전면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 / 한글 자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LCD형 영어로봇 '뉴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 9